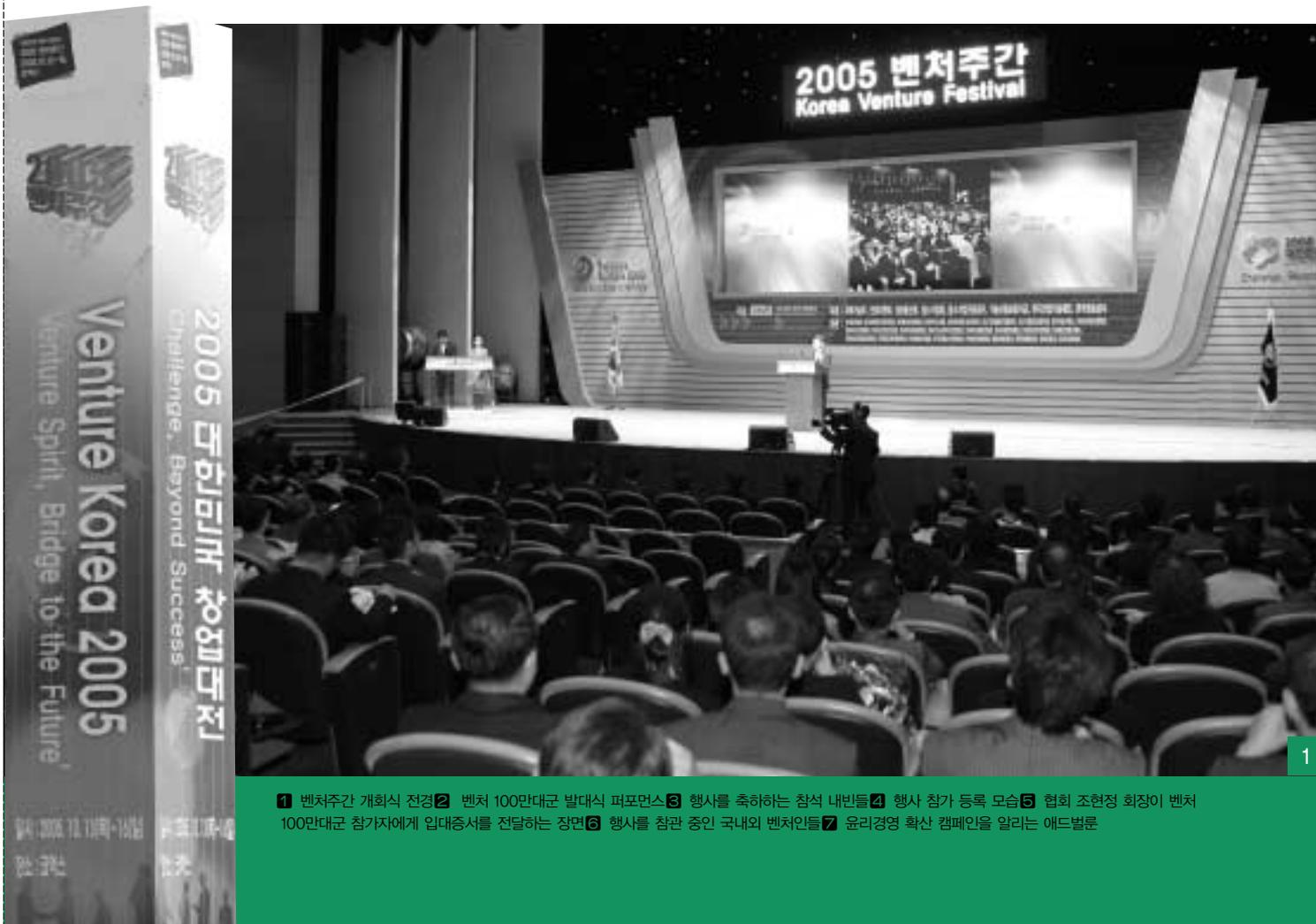


2005 벤처주간 개막 행사 스케치

벤처인의 향연, 2005 벤처주간



1 벤처주간 개최식 전경 2 벤처 100만대군 발대식 퍼포먼스 3 행사를 축하하는 참석 내빈들 4 행사 참가 등록 모습 5 협회 조현정 회장이 벤처 100만대군 참가자에게 입대증서를 전달하는 장면 6 행사를 참관 중인 국내외 벤처인들 7 윤리경영 확산 캠페인을 알리는 애드벌룬

국

내의 벤처인의 최대 축제인 '2005 벤처주간' 행사가 지난 10월 13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벤처주간은 협회가 매년 개최해 오던 벤처코리아와 대한민국창업대전을 한데 묶은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각지와 국내에서 활동 중인 2000여 명의 벤처인들과 벤처산업 및 창업에 관심있는 2만 여명의 일반인이 참석, 명실상부한 벤처산업 최대 축제임을 과시했다.

'벤처주간'은 지난달 13일 벤처 CEO 포럼과 해외기업 및 대기업 초청 상담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14일에는 벤처주간 개최식 및 시상식, 대한민국창업대전 개막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개최식에서는 벤처인들의 뜻을 모아 재도약을 다짐하는 벤처 100만대군 발대식이 열렸다. 100만명의 벤처인을 양성, 벤처산업 부흥을 통해 한국

Korea Venture Festival

2005



2



3



4



5



6



7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개최된 것이다. 이에 앞서 황 쉹칭(Huang Chengqing) 중국인터넷협의회(ISC) 비서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창업대전은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열렸다. 기간 중 기술거래장터, 1대1 맞춤형상담, 창업성공사례발표회, 창업강좌 등이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13일에는 지방 및 수도권 소재 벤처기업의 취약한 유통체계 개선 및 우수상품 발굴을 위한 '우수 벤처제품 오픈마켓' 행사가 개최됐으며, 14~15일에

는 '우수 벤처기업 채용 박람회'가 열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의 참가가 줄을 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벤처코리아와 대한민국창업대전을 연계해 개최된 벤처주간 행사는 「벤처창업활성화 → 우량기업 발굴 → 단계별 성장 지원 → 글로벌 스타기업 양성」이라는 벤처기업 성장의 선순환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을 딛고 다시 뛰는 벤처의 이미지를 부각, 한층 높아진 제2의 벤처봄 가능성을 제시했다.